

가정 내 혼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 주의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Household Chaos on the Self-Determination of Young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Attention

1차원고접수: 2024.07.10. 수정원고접수: 2024.08.24. 최종게재결정: 2024.09.21.

민분홍¹ · 신나리²

¹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²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Min, Boonhong¹

Shin, Nary²

^{1,2}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정 내 혼돈 정도가 유아의 주의력 수준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2017년생 5세반 유아 267명과 그들의 어머니, 5세반 19명의 담임교사이며,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주의력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번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가정 내 혼돈이 유아의 주의력 부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혼돈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주의력 부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주의력 부족은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주의력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환경 맥락에서 과도한 수준의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극은 유아의 주의력을 저해하고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 내 자극을 일정 수준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자기결정성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자기결정성, 가정 내 혼돈, 유아의 주의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household chaos on the self-determination of young children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atten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67 5-year-old children, their mothers, and 21 homeroom teacher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atten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chaos and children's self-determination, Model 4 of SPSS PROCESS macro proposed by Hayes (2018) was appli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ousehold chao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self-determination in educational settings by influencing their attention span subsequently. This suggests that maintaining a certain level of stimulation in the home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s excessive levels of unpredictable stimuli hinder children's attention and negatively affect their self-determination.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promoting self-determination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analyzing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self-determination. Furthermore, the study implications suggest that the study can be used as theoretical data for teacher and parent educa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elf-determination of young children.

Keywords self-determination, household chaos, children's atten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가 성장하면서 원활한 일상 활동을 영위하고, 원

만한 사회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유능감을 갖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자율적 선택 경험을 통한 자기결정성 발달이 필수적이다.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성격 연구, 동기 부여 분야 및 특수교육에서 다양한 방식

* 이 논문은 민분홍(2024)의 박사학위논문과 2024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신나리 (Shin, Nary)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binah2009@chungbuk.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으로 개념화되어왔으며,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자기 인식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권을 갖고 목표 성취를 위해 갖는 태도, 능력 및 기술을 의미한다(Martin, Huber Marshall, & Maxson, 1993; Ward, 1988).

자기결정성이론을 수립한 Deci와 Ryan(2000)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자기결정성에 따라 동기가 달라지게 되며, 동기는 환경적 요소인 부모, 교사나 친구들에 의해 지지되거나 저해될 수 있어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욕구 만족의 수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과 관계성(relatedness)의 충족이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특성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자기결정성이 잘 발달된 아동은 자신의 삶을 보다 잘 조절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류숙렬, 2002), 자기결정성은 개인의 학습태도, 학업성취,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기술 및 또래 관계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원활한 일상생활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본 능력이다(노미애, 2009; 박수진, 2011; 박영민, 2010; 송경애, 2006; 조현철, 2000; 최미숙, 강은영, 이미혜, 2010). 유아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3세가 되면 자기 인식, 자기 평가에 대한 능력이 발달한다(Barrett & Morgan, 1995). 5세에는 언어의 내면화와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면서 자기통제력이 증진되게 되며, 자기통제가 일정 수준 가능해지면 유아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Carlton & Winsler, 1998).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유아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발생한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린 시기에 선택과 통제의 경험을 통해 자기결정 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박근주, 2014; 조

인수, 김혜경, 2003). 이처럼 유아기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자기결정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해결을 위한 대안 중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다(Brotherson, Cook, Erwin, & Weigel, 2008). 특히, 자기결정성은 유아기에 지지되고, 발달되지 않으면 추후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자연스럽게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otherson, Cunconan-Lahr, Cook, & Wehmeyer, 1995; Wehmeyer, 1998). 이에 유아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자기결정성을 배양하는 것은 유아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적 함의를 지닌다.

Deci와 Chandler(1986)에 따르면 유아기 자기결정성 증진을 위해서는 도전, 자율성과 피드백이 필요하고, 성인들은 가능한 유아의 자기결정에 대한 통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아기의 자기결정성은 발달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김연주, 2018; 김지효, 2023; 모미라, 2019; 박근주, 서소정, 2013), 유아기 자기결정성과 가정, 학교 환경,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Palmer et al., 2019).

특히, 취학 전 유아기는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없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중심의 일과 가운데 자율적으로 놀이 파트너를 결정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자기결정성에 대한 탐색을 유아기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성이 유아를 대상으로는 제한적으로 탐색되는 이유 중 하나는 관련 도구가 6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 5세반 입학 연령은 1월 1일에 당시 만나이를 기준으로 구성하여 학기가 진행되면서 한 학급에 5세와 생일이 지난 6세로 혼재하게 된다. 이에 유치원의 5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동일한 교육과정 내에서도 자기결정성의 발달적 경향을 탐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결정성에 기초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Deci & Ryan, 2000). 가정환경은 영유아가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차적 환경으로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초기경험을 이루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김지현, 정현심, 김정민, 이순형, 2012). 영유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경험은 영유아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한명숙, 2013), 선행 연구는 가정에서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어떤 양육 행동이 자녀의 자율성이나 유능감을 발달시키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지혜, 장영숙, 2016; 이현아, 이강이, 2021; 이효임, 신나리, 2020; 전윤희, 임원신, 2023).

이처럼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가정환경 맥락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정환경 관련 최근 연구는 가정환경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 외에 위험요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정환경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변인으로 가정 내 혼돈(household chaos)을 들 수 있다. 가정 내 혼돈은 비구조화된 환경에서 과도한 자극이 발생하는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무질서와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등 규칙의 부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Coldwell, Pike, & Dunn, 2006; Garrett-Peters et al., 2016; Vernon-Feagans, Garrett-Peters, Willoughby, Mills-Koonce,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2). 이는 필요 이상의 과잉 자극이 존재하는 상태로 높은 수준의 청각적 소음, 비구조화, 서두름 및 가족 루틴(routine)의 부족과 무질서한 공간 등을 뜻한다.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에 유리한 가정환경은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자신의 요구와 강점을 인지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을 실행하며, 자신의 실행을 반성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Palmer et al., 2019). 반면, 높은 혼돈 수준의 가정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 실행이 불가능하며, 유아가 가정 내

위험요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가정 내 비구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활동에 대한 불편함 등이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을 저해하는 가정환경으로 초래된다고 보고하였다(Lang & Sullivan, 1986; Lewis, 1986; Miller, 1986). 가정 내 높은 무질서와 필요 이상의 과잉 자극은 유아의 각성 상태를 지속시켜 부적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유아가 불안정성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안정감이 저해되고 일상적인 규칙을 습득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이보미, 노지운, 신나리, 2023).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정 내 혼돈은 인지, 정서, 언어, 사회성 등 발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된다(Berry et al., 2016; Deater-Deckard et al., 2009; Martin, Razza & Brooks-Gunn, 2012; Raver, Blair, Garrett-Peters,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5; Tucker, Sharp, Van Gundy, & Rebellon, 2018; Vernon-Feagans et al., 2012). 뿐만 아니라 가정 내 혼돈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을 들 수 있다(Evans, Gonnella, Marcynyszyn, Gentile, & Salpekar, 2005; Garrett-Peters, Mokrova, Carr, & Vernon-Feagans, 2019; Lecheile, Spinrad, Xu, Lopez, & Eisenberg, 2020; Vernon-Feagans, Willoughby, & Garrett-Peters, 2016). 다만 높은 수준의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주의력 결핍 행동으로 유발되는데 실제로 가정 내 혼돈이 유아의 주의력 수준을 낮춰 주의력 결핍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의 주의력은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지각 발달 및 인지 발달을 이루는 기초이며, 지각발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Shaffer et al., 2001). 유아의 주의력이 높아지면 방해자극 속에서 목표 자극을 찾아내고 주의를 통제하는 능력이 발달되며, 융통적이고 계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Ruff & Rothbart, 1996). 따라서 높은 주의력의 유아는 주어진 일에 대한 효율성이 높으며, 주어진 과제에 면밀히 집중하여 마무리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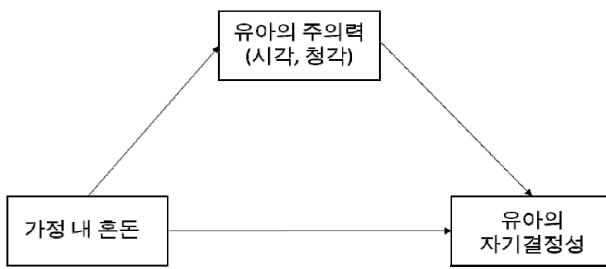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유아의 주의력 수준은 유아가 자신이 지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자기결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임상 수준의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유아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김남희, 김미현, 2010; 김숙령, 이선희, 2006; 김신옥 2006; 박영희, 김신곤, 2017; 신유림, 2017; 이기현, 2004; 이준필, 2009; 이현정, 이에진, 신유림, 2013; 이혜숙, 곽은순, 2014; 정계숙, 노진형, 2010), 유아의 주의력 수준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유아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가정 내 혼돈 정도가 유아의 주의력 수준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 참조)은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정 내 혼돈은 유아 주의력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가정 내 혼돈과 유아 시각 주의력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가정 내 혼돈과 유아 청각 주의력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충청북도 청주시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2017년생 5세반 267명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5세반 19명의 담임교사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유아는 남아(52.8%)가 여아(47.2%)보다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을 월령으로 계산했을 때 69.8개월($SD = 3.5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71세($SD = 3.87$)로 30대가 64.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34.1%), 20대(1.1%)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39.3%), 2, 3년제 대학교 졸업(39.0%), 고등학교 졸업(14.6%), 대학원 졸업 이상(7.1%)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41.9%)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19.9%), 판매서비스·생산·단순노무직(14.6%), 전문직(14.2%), 관리직 및 기타(9.4%) 순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평균 연령은 29.73세($SD = 6.72$)로 20대(57.9%), 30대(26.3%), 40대 이상(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2, 3년제 대학교 졸업(52.6%), 4년대 대학 졸업(36.9%), 대학원 졸업 이상(10.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유아의 자기결정성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OSERS)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세부터 21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Wolman, Campeau, Dubois, Mithaug와 Stolarski(1994)가 개발한 'AIR Self-Determination Scale'을 류숙렬(2002)이 한국형으로 변안하여 타당화하고, 박근주(2014)가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용과 교사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유아 자기결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67)

대상자	구분		n(%)
유아 (n = 267)	성별	남	141(52.8)
		여	126(47.2)
	월령	6세 미만	146(54.7)
		6세 이상	121(45.3)
		M(SD)	
어머니 (n = 267)	연령	20대	3(1.1)
		30대	173(64.8)
		40대 이상	91(34.1)
		M(SD)	
	학력	고등학교 졸업	39(14.6)
		2, 3년제 대학교 졸업	104(39.0)
		4년제 대학교 졸업	105(39.3)
		대학원 졸업 이상	19(7.1)
	직업	전업주부	112(41.9)
		사무직	53(19.9)
전문직		38(14.2)	
판매서비스 · 생산 · 단순 노무직		39(14.6)	
관리직 및 기타		25(9.4)	
교사 (n = 19)	연령	20대	11(57.9)
		30대	5(26.3)
		40대 이상	3(15.8)
		M(SD)	
	학력	2, 3년제 대학교 졸업	10(52.6)
		4년제 대학교 졸업	7(36.9)
		대학원 졸업 이상	2(10.5)

정성을 측정을 위해 교사용을 선택하였다. 본 척도는 역량(18문항)과 기회(6문항)의 2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 문항의 예는 ‘이 유아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있다’와 ‘이 유아는 자신이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을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를 들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서의 기회 문항의 예는 ‘교육기관에서는, 이 유아가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에 관하여 탐색하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와 ‘교육기관에서는, 이 유아가 자신이 원하고, 흥미가 있고 필요로 하는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이다. Likert식 5점 척도(1 = 전혀 없음, 2 = 거의 없음, 3 = 때때로, 4 = 거의 항상, 5 = 항상)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4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9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가정 내 혼돈

가정 내 혼돈 척도는 Matheny, Wachs, Ludwig와 Phillips (1995)가 개발한 척도(Confusion, Hubbub, and Order Scale; CHAOS)를 엄문설, 오혜민과 이양희(2021)가 한국 문화에 적합하게 변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 내 높은 수준의 소음, 혼잡성 및 통행량, 낮은 규칙성과 체계 등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어머니가 설문지를 통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다. 가정 내 혼돈의 문항의 예로는 ‘우리 집에는 소란스러움이 거의 없다’, ‘우리는 필요할 때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이다. Likert식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약간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인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 혼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7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주의력

유아의 주의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홍강의, 신민섭과 조성준(2022)이 개발한 한국판 전산화 주의력 검사(Korean Attention Test System; KAT)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만 5세부터 15세 연령 범위의 아동 및 청소년의 시청각 주의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검사 메뉴얼에 따라 시각 주의력 검사와 청각 주의력 검사를 각각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본 척도의 경우 주의력 측정이 독립적으로 모두 완료되면 제공되는 50 ~ 150 사이의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 부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CBNU-202302-HR-0027)을 받은 후, 2023년 3월 27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계획된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문장의 난이도, 이해도 및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임의로 선정된 청주시 유치원의 5세반 유아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3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유아 및 어머니 모집을 위하여 유아를 통해 가정으로 연구대상자 모집 브로셔를 보냈으며, 연구 참여에 희망할 경우, 유아를 통해 연구설명서와 동의서가 포함된 어머니용 설문지를 가정으로 보내어 서면 동의를 회수하였다. 유아의 주의력은 연구자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검사하여 측정하였으며, 담임교사 모집을 위해 교사용 모집 브로셔를 이용하여 직접 담임교사에서 연구의 목적과 진행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희망한 담임교사는 대상 유아를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본 분석에 앞서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주의력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번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가정 내 혼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 혼돈, 유아 주의력, 유아의 자기결정성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가정 내 혼돈, 유아의 주의력과 자기결정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가정 내 혼돈은 $1.97(SD = .38)$ 로 2점 이하로 나타나 가정 내 혼돈 수준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시각 주의력은 $105.99(SD = 10.16)$ 로 평균인 100보다 부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청각 주의력은 $90.56(SD = 6.61)$ 으로 평균보다 부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3.96(SD = .55)$ 으로 3점 이상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청각 주의력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r = .14, p < .05$). 유아의 시각 주의력은 유아의 청각 주의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36, p < .01$), 유아의 자기결정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 = -.22, p < .01$). 유아의 청각 주의력은 유아의 자기결정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 = -.21, p < .01$).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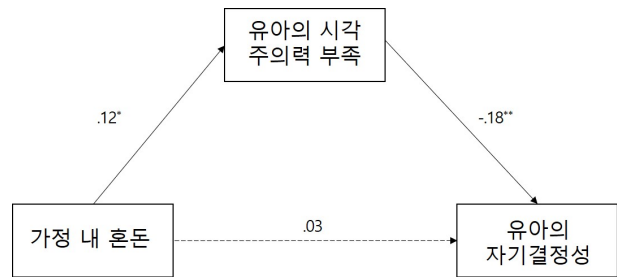
해서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가 0.86에서 0.97 범위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는 최저 1.02에서 1.16으로 변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정 내 혼돈,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시각 주의력의 매개효과 검증은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모형에는 각 변수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보이는지를 사전 검토한 결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 자기결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정 내 혼돈은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이 두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표 3과 같이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 = .12, p < .05$),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도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beta = -.18, p < .01$)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이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



주1. 모든 경로계수추정치는 표준화계수임.

주2. 가정 내 자녀수와 유아의 연령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모형임. * $p < .05$, ** $p < .01$.

그림 2.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의 매개효과

표 2.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N = 267$)

구분	①	②	③	④
① 가정 내 혼돈	1.00			
②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	.11	1.00		
③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	.14*	.36**	1.00	
④ 유아의 자기결정성	-.01	-.22**	-.21**	1.00
<i>M</i>	1.97	105.99	90.56	3.96
<i>SD</i>	.38	10.16	6.61	.55

주. 가정 내 혼돈은 4점 척도, 유아 주의력은 100이 평균인 점수이며,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5점 척도임.

* $p < .05$, ** $p < .01$.

표 3.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의 매개효과 분석

변수	β	<i>S.E.</i>	<i>t</i>	<i>p</i>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						
상수	103.72	3.51	29.51	.00	96.80	110.64
가정 내 혼돈	.12	1.59	2.10	.03	.21	6.48
자녀수	-.06	1.05	-.99	.32	-3.10	1.02
유아의 연령	-.25	1.21	-4.27	.00	-7.52	-2.78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 유아의 자기결정성)						
상수	5.00	.40	12.56	.00	4.22	5.78
가정 내 혼돈	.03	.09	.47	.64	-.13	.21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	-.18	.00	-2.95	.00	-.02	-.00
가정 내 자녀수	-.08	.06	-1.35	.18	-.19	.04
유아의 연령	.15	.07	2.49	.01	.04	.30

주1. 자녀수는 연구대상 유아를 포함하여 분석함.

주2. 유아의 연령은 주의력 검사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6세 미만을 0, 6세 이상을 1로 코딩하여 분석함.

정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의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랩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 내 혼돈이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을 통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3이었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8, 상한값 -.0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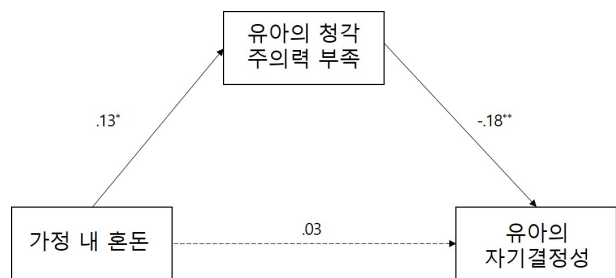
3. 가정 내 혼돈,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시, 유아의 연령과 형제 유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표 5와 같이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13$, $p < .05$),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도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 = -.18$, $p < .01$)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은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사이에서 완전매개하였다.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핑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주1. 모든 경로계수추정치는 표준화계수임.

주2. 자녀수와 유아의 연령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모형임.
* $p < .05$, ** $p < .01$.

그림 3.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의 매개효과

표 4.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시각 주의력 부족의 간접효과 검증

변수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01	.09	-.17	.18
직접효과	.04	.09	-.13	.21
간접효과	-.03	.02	-.08	-.00

표 5.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의 매개효과 분석

변수	β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						
상수	85.88	2.32	37.09	.00	81.32	90.44
가정 내 혼돈	.13	1.05	2.08	.03	.12	4.25
자녀수	.07	.69	1.13	.26	-.58	2.14
유아의 연령	-.18	.79	-3.06	.00	-3.99	-.87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 유아의 자기결정성)						
상수	5.24	.48	10.96	.00	4.30	6.18
가정 내 혼돈	.03	.09	.47	.64	-.13	.21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	-.18	.00	-2.90	.00	-.02	-.00
자녀수	-.06	.06	-.97	.33	-.17	.06
유아의 연령	.17	.07	2.76	.00	.05	.31

주1. 자녀수는 연구대상 유아를 포함하여 분석함.

주2. 유아의 연령은 주의력 검사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6세 미만을 0, 6세 이상을 1로 코딩하여 분석함.

표 6.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의 간접효과 검증

변수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01	.09	-.17	.18
직접효과	.04	.09	-.13	.21
간접효과	-.03	.01	-.07	-.00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정 내 혼돈이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을 통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3으로 나타났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7, 상한값 -.0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가정 내 혼돈이 유아의 청각 주의력 부족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5세반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 내 혼돈이 유아 주의력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된 연구의 결과 및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주의력을 매개하여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주의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 내 혼돈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주의력 부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숙령, 이선희, 2006; 윤정자, 김영희, 1998; Barkley, DuPaul, & McMurray, 1990; Biederman, Newcorn, & Sprich, 1991; Evans & Wachs, 2010; Li-Grining, 2007; Vernon-Feagans et al., 2016). 가정 내 과도한 소음과 혼잡함은 유아의 집중력과 이를 유지하려는 통제력을 약화시키며, 높은 가정 내 혼돈에 노출된 유아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 내 규칙적인 일과와 구조화되고 조직화 된 가정환경 제공은 유아의 주의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아의 주의력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가족체계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유아 주의력 부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결정성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맥락에서 주의력 결핍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자기결정성의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과 관계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Rogers & Tannock, 2018)와 맥을 같이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의집중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는 자발적 각성, 흥미 유발 부족, 각성 수준의 불균형, 호기심과 적극적 태도가 부족하며, 쉽게 지루해 하거나 따분함을 느끼고, 지속적인 주의집중 유발과 유지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수진, 2013). 이처럼 유아의 낮은 주의력 수준은 자기결정성의 기저로 작용하는 내적 동기 유발을 저해하여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영향력을 유아를 둘러싼 가정환경의 맥락으로 확장하여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Brotherson, et al., 2008, Lang & Sullivan, 1986; Lewis, 1986; Miller, 1986)을 기초로 물리적 가정환경인 가정 내 혼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 즉 유아의 자기결정 행동의 정도와 질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 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 금지 또는 촉진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과 유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김수연, 2007; 김수진, 2010; Wehmeyer, Agran, & Hughes, 199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

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며,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반면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물리적인 측면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관여, 수용 등 자기결정성 관련 양육 행동과 같은 가정 내 심리적·사회적 환경이 물리적 환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기존에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사용되어 온 Baron과 Kenny(1986)의 관점에서 볼 때 본 2단계를 충족하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이 불가능한 모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제시한 다른 연구자들은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2단계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Hayes, 2018; Shrout & Bolger, 2002). 첫째, Baron과 Kenny(1986)의 검증 방법은 매개효과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추론하며, 매개효과의 크기를 직접 산출하여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둘째,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세 개의 영가설을 차례로 검증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Baron과 Kenny의 가정에 근거한 Sobel(1982)의 유의성 검증은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시 표본분포가 정규분포(Z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매개효과의 분포는 편포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 검증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Preacher & Hayes, 2004). Shrout과 Bolger(2002)는 경험적 분포를 활용한 bootstrap방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Sobel의 Z검증과 같은 이론적 분포를 가정하는 방법에 비해 더욱 높은 검증력을 가진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개모형은 기존의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의 성립조건인 2단계가 충족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Hayes(2018)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의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 모두 가정 내 혼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의 관

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과 청각을 통한 주의 기제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각 주의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의력 관련 기존 연구들(박서희, 2018; 손지원, 이해림, 2023; Banich & Compton, 2018)에서 벗어나 시각과 청각 주의력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ADHD 유아를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의 차이에 의해 여러 군으로 구분하여 인지 기능, 정서 및 행동 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청각적 주의에서 손상이 더욱 심할수록 ADHD 유아의 주의 집중력에서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손정우, 2006). 유아를 대상으로 시각 및 청각 자극으로 제시되는 연속수행검사(continuous performance test; CPT)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아의 시각 CPT 수행과 청각 CPT 수행을 통한 유아의 시각적 주의와 청각 주의를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시각 CPT에 비해 청각 CPT에서 더 많은 누락 오류와 오경보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박새롬, 2019). 이는 유아의 시각과 청각 주의력의 인지 처리 전략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유아의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는 과제 목표에 따른 맥락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대조적으로 청각 정보를 처리할 때는 자극 정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인지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Munakata, Snyder, & Chatham, 2012).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의 평균을 비교하면 시각 주의력은 표준화 점수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며, 청각 주의력은 표준화 점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의 점수 모두 ± 1 표준편차 범위 내에 분포하므로 표준화된 점수와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을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각 주의력 검사 결과, ADHD 지수로 구분되는 ‘의심’과 ‘ADHD’ 집단에 해당하는 유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 주의력에 비해 청각 주의력 점수가 더욱 변별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

의 주의력 측정에 있어서 자극 판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청각 주의력이 더 변별력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신민섭, 조성준, 전선영, 홍강의, 2000)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주의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의 주의 기제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유아의 유능성이 다르게 발휘될 수 있으나 유아의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은 모두 동일하게 가정 내 혼돈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혼돈은 유아 주의력을 매개하여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가정 내 혼돈은 유아의 주의력을 낮추고 유아의 교육기관 내에서의 자기결정 행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습 맥락에서 내적동기를 유발하여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불확실하고 기존과는 다른 비일상적인 자극을 제시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수용되기는 하지만(조은희, 2010; Kopp, 1982),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정환경 맥락에서, 과도한 수준의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극은 유아의 주의력을 저해하고 자기결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 내 자극을 일정 수준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의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결정성 측정을 위한 척도는 역량 18문항, 교육기관에서의 기회 6문항, 가정에서의 기회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기회 문항은 담임교사가 평정하기에 타당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고, 역량과 교육기관에서의 기회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나 대상에 따라 기존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정에서의 기회 관련 문항의 요인 분석 또는 예비조사를 통해 기회 관련된 문항을 수정 및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 수집 절차상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독립변

인에 대한 측정이 종속변인의 측정보다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가정 내 혼돈, 유아의 주의력, 자기결정성의 순서로 측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주의력은 교육기관의 외부활동, 행사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담임교사가 측정하는 유아의 자기결정성이 유아의 주의력 보다 먼저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다만 유아의 자기결정성은 학급 담임교사가 학기 초부터 해당 유아를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정하는 것으로 유아의 주의력보다 순서상 먼저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유아의 고유한 자기결정성에는 큰 변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자료수집의 편의성을 우선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수집 절차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한다고 사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내 변인을 순서대로 측정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교육기관 맥락에서 유아의 자기결정성을 특성을 파악하고, 가정 내 혼돈과 유아의 주의력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유아 자기결정성에 관한 연구가 유아의 내적 특성을 중점으로 살펴본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유아를 둘러싼 물리적인 가정환경을 함께 살펴봄에 따라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에 있어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자기결정성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아의 자기결정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인 교사 및 부모 교육을 위한 이론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남희, 김미현 (2010).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성향을 지닌 유아의 식행동과 식사균형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3(1), 102-113.
- 김수연 (2007).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자기결정력 증진을

- 위한 초등 체육과 게임 활동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2(2), 29-56.
- 김수진 (2010). 자기결정력 향상 프로그램 적용이 경도 발달장애 중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령, 이선희 (2006). 가정환경 및 어머니 양육태도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성향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3(1), 1-13.
- 김신옥 (2006). 모래상자 놀이를 통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유아의 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10(2), 37-56.
- 김연주 (2018). 유아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자기결정력, 자아존중감, 가정의 환경자극수준, 그리고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에 대한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정현심, 김정민, 이순형 (2012). 유아용 가정환경 척도 개발 연구. 아동교육, 21(1), 77-92.
- 김지효 (2023).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애 (2009).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높은 대학생의 내외 동기와 대인관계기술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숙렬 (2002). 자기결정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전이 경도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모미라 (2019). 유아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및 유아의 자기결정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수진 (2013). ARCS 동기모델에 비추어본 학습장애 아동의 동기 관련 연구 특징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4(4), 81-112.
- 박근주 (2014).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근주, 서소정 (2013). 유아의 자기 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의 놀이성,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489-511.
- 박새롬 (2019). 시각과제와 청각과제를 통해 본 학령전기 아동의 인지통제기제: 인지신경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서희 (2018). 온라인 주의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시지각과 시각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2011). 생명경험이 자기결정성과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민 (2010).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 꾸물거림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희, 김신곤 (2017).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언어능력 간의 관계: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1(5), 219-238.
- 손정우 (2006).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의 차이를 보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인지기능과 정서 및 행동 문제. 생물정신의학, 13(2), 70-81.
- 손지원, 이혜림 (2023). 감각통합치료와 가정프로그램 중재 병행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시각적 주의력에 미치는 효과: 단일사례연구.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21(2), 12-23.
<https://doi.org/10.18064/JKASI.2023.21.2.12>
- 송경애 (2006). 자아존중감 및 자기결정동기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0(3), 177-202.
- 신민섭, 조성준, 전선영, 홍강의 (2000). 전산화된 주의력장애 진단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91-99.
- 신유림 (2017). 유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과 또래거부 및 친구관계의관련성에서 친사회성의 중재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4), 433-440.
<https://doi.org/10.6115/fer.2017.031>
- 엄문설, 오혜민, 이양희 (2021). 한국판 가정 내 혼란 척도 (K-CHAOS)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195-205.
<https://doi.org/10.5392/JKCA.2021.21.02.195>
- 윤정자, 김영희 (1998).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아동의 범주화와 가족환경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6(8), 123-140.
- 이기현 (2004). 통합 학급에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HD) 특성을 지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 과정.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5(4), 121-147.
- 이보미, 노지운, 신나나 (2023).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면문제와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61(1), 1-13.
<https://doi.org/10.6115/her.2023.001>
- 이준필 (200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유아에게 미술치료가 미치는 교육적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293-317.
- 이지혜, 장영숙 (2016).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율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8(4), 1-20.
- 이현아, 이강이 (2021).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과제 지원 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2), 185-198.
<https://doi.org/10.5723/kjcs.2021.42.2.185>
- 이현정, 이예진, 신유림 (2013).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 관계에서 언어능력의 중재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4), 395-401.
<https://doi.org/10.6115/fer.2013.51.4.395>

- 이혜숙, 곽은순 (2014). 이동중심 동작교육이 유아들의주의력결핍과잉행동, 내적통제력 부족, 내성적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18(4), 93-114.
- 이효임, 신나리 (2020). 어머니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시간의 매개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3), 59-77.
<https://doi.org/10.14698/jkcc.2020.16.03.059>
- 전윤희, 임원신 (2023). 부모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8(3), 81-111.
<https://doi.org/10.16978/ecec.2023.18.3.004>
- 정계숙, 노진형 (2010).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와 교사의 다중평정을 통하여. *인간발달연구*, 17(1), 285-300.
- 조은희 (2010). ARCS 동기화 전략을 적용한 교수학습활동이 유아 경제개념 획득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수, 김혜경 (2003). 발달지체유아의 자기결정훈련의 당위성과 수업적 접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4(3), 17-38.
- 조현철 (2000). 자기결정적 학습동기의 학습결과 및 학습활동에 대한 관련. *교육학연구*, 38(1), 95-121.
- 최미숙, 강은영, 이미혜 (2010). 유아교사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30(1), 225-248.
- 한명숙 (2013). 유아의 배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가족건강성, 모자상호작용, 가정환경자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강의, 신민섭, 조성준 (2022). *한국판 전산화 주의력 검사*. 서울: 학지사.
- Banich, M. T., & Compton, R. J. (2018). *Cognitive neuro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kley, R. A., DuPaul, G. J., & McMurray, M. B. (1990). Comprehensive evaluation of 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 and without hyperactivity as defined by research criteri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6), 775.
<https://doi.org/10.1037/0022-006X.58.6.77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arrett, K. C., & Morgan, G. A. (1995).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mastery motivation during infancy and toddlerhood: A conceptualization and review. In R. H. MacTurk & G. A. Morgan (Eds.), *Mastery motivation: Origins, conceptualizations, and applications*. Norwood, NJ: Ablex.
- Berry, D., Blair, C., Willoughby, M., Garrett-Peters, P., Vernon-Feagans, L., Mills-Koonce, W. R.,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6). Household chaos and children's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Does childcare play a buffering ro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4, 115-127.
<https://doi.org/10.1016/j.ecresq.2015.09.003>
- Biederman, J., Newcom, J., & Sprich, S. (1991). Comorbidity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5), 564-577.
<https://doi.org/10.1176/ajp.148.5.564>
- Brotherson, M. J., Cook, C. C., Erwin, E. J., & Weigel, C. J. (2008). Understanding self-determination and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ome environment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1(1), 22-43.
<https://doi.org/10.1177/1053815108324445>
- Brotherson, M. J., Cunconan-Lahr, R., Cook, C. C., & Wehmeyer, M. L. (1995). Policy supporting self-determination in the environm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1), 3-14.
- Carlton, M. P., & Winsler, A. (1998). Fostering intrinsic motivation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5, 159-166.
- Coldwell, J., Pike, A., & Dunn, J. (2006). Household chaos-links with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1), 1116-1122.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6.01655.x>
- Deater-Deckard, K., Mullineaux, P. Y., Beekman, C., Petrill, S. A., Schatschneider, C., & Thompson, L. A. (2009). Conduct problems, IQ, and household chaos: A longitudinal multi-informant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10), 1301-1308.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9.02108.x>
- Deci, E. L., & Chandler, C. L. (1986). The importance of motivation for the future of the LD field.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9(10), 587-594.
<https://doi.org/10.1177/002221948601901003>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 Evans, G. W., & Wachs, T. D. (2010). *Chaos and its influence on children's develop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vans, G. W., Gonnella, C., Marcynyszyn, L. A., Gentile, L., & Salpekar, N. (2005). The role of chaos in poverty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Psychological Science*, 16(7), 560-565.
<https://doi.org/10.1111/j.0956-7976.2005.01575.x>
- Garrett-Peters, P. T., Mokrova, I. L., Carr, R. C., & Vernon-Feagans, L. (2019). Early student (dis) engagement: Contributions of household chaos, parenting, and self-regulatory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55(7), 1480.
<https://doi.org/10.1037/dev0000720>
- Garrett-Peters, P. T., Mokrova, I., Vernon-Feagans, L., Willoughby, M., Pan, Y.,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6). The role of household chaos in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early poverty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7, 16-25.
<https://doi.org/10.1016/j.ecresq.2016.02.004>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ublications.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
<https://doi.org/10.1037/0012-1649.18.2.199>
- Lang, M. A., & Sullivan, C. (1986). Adapting home environments for visually impaired and blind children. *Children's Environments Quarterly*, 3(1), 50-54.
- Lecheile, B. M., Spinrad, T. L., Xu, X., Lopez, J., & Eisenberg, N. (2020).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household chaos, SES, and effortful control in the prediction of language skill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56(4), 727-738.
<https://doi.org/10.1037/dev0000896>
- Lewis, B. E. (1986). The stigmatized home: Why parents delay removing architectural barriers. *Children's Environments Quarterly*, 3(1), 63-67.
- Li-Grining, C. P. (2007). Effortful control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in three cities: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1), 208.
<https://doi.org/10.1037/0012-1649.43.1.208>
- Martin, A., Razza, R. A., & Brooks-Gunn, J. (2012). Specifying the links between household chaos and preschool children's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2(10), 1247-1263.
<https://doi.org/10.1080/03004430.2011.605522>
- Martin, J. E., Huber Marshall, L., & Maxson, L. L. (1993). Transition policy: Infusing self-determination and self-advocacy into transition program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6(1), 53-61.
<https://doi.org/10.1177/088572889301600105>
- Matheny Jr, A. P., Wachs, T. D., Ludwig, J. L., & Phillips, K. (1995). Bringing order out of chaos: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confusion, hubbub, and order scal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6(3), 429-444.
[https://doi.org/10.1016/0193-3973\(95\)90028-4](https://doi.org/10.1016/0193-3973(95)90028-4)
- Miller, S. (1986). Designing the home for children: A need-based approach. *Children's Environments Quarterly*, 3, 55-62.
- Munakata, Y., Snyder, H. R., & Chatham, C. H. (2012). Developing cognitive control: Three key transi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2), 71-77.
<https://doi.org/10.1177/0963721412436807>
- Palmer, S. B., Fleming, K. K., Summers, J. A., Erwin, E. J., Maude, S. P., Brotherson, M. J., Stroup-Rentier, V., Haines, S. J., Zheng, Y. Z., Peck, N. F., & Wu, H. Y. (2019). Foundations for self-determination in early childhood: Preliminary preschool study. *Advances in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3, 188-196.
<https://doi.org/10.1007/s41252-019-00106-0>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https://doi.org/10.3758/BF03206553>
- Raver, C. C., Blair, C., Garrett-Peters, P.,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5). Poverty, household chaos, and interparental aggression predict children's ability to recognize and modulate negative emo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3), 695-708.
<https://doi.org/10.1017/S0954579414000935>
- Rogers, M., & Tannock, R. (2018). Are classrooms meeting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hildren with ADHD symptoms?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22(14), 1354-1360.
<https://doi.org/10.1177/1087054713508926>
- Ruff, H. A., & Rothbart, M. K. (1996). *Attention in early development: Themes and variation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haffer, R. J., Jacokes, L. E., Cassily, J. F., Greenspan, S. I., Tuchman, R. F., & Stemmer Jr, P. J. (2001). Effect of interactive metronome training on children with ADHD.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5(2), 155-162.

- <https://doi.org/10.5014/ajot.55.2.15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https://doi.org/10.2307/270723>
- Tucker, C. J., Sharp, E. H., Van Gundy, K. T., & Rebellon, C. (2018). Household chaos, hostile parenting, and adolescents' well-being two years late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 3701-3708. <https://doi.org/10.1007/s10826-018-1198-x>
- Vernon-Feagans, L., Garrett-Peters, P., Willoughby, M., Mills-Koonce, R.,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2). Chaos, poverty, and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language develop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3), 339-351. <https://doi.org/10.1016/j.ecresq.2011.11.001>
- Vernon-Feagans, L., Willoughby, M., & Garrett-Peters, P. (2016). Predictors of behavioral regulation in kindergarten: Household chaos, parenting, and early executive fun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2(3), 430. <https://doi.org/10.1037/dev0000087>
- Ward, M. J. (1988). *The many facets of self-determination: Transition summary*. Washington, D.C.: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Children and Youth with Handicaps.
- Wehmeyer, M. L. (1998). Self-determination and individual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Examining meanings and misinterpretation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3(1), 5-16. <https://doi.org/10.2511/rpsd.23.1.5>
- Wehmeyer, M. L., Agran, M., & Hughes, C. (1998). *Teaching self-determination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ic skills for successful transition*. Baltimore: Paul H. Brookes.
- Wolman, J., Campeau, P., Dubois, P., Mithaug, D., & Stolarski, V. (1994). *AIR self-determination scale and user guide*. Palo Alto, CA: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